

북한 『로동신문』 사설 분석

2020-2 (3월/4월)

이기동 (북한연구실 수석연구위원)

목 차

1. 사설 목록	1
2. 일반적 특징	2
3. 개별 사설 분석	5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설 목록

순서	일자	제목
1	3. 2	오늘은 식수절이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끓이며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산림조성사업에 적극 참가하자
2	3. 5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본태를 확고히 고수해나가자
3	3. 7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더욱 철저히 세우자
4	3. 8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조선여성들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자
5	3. 9	봄철국토관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6	3.16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열풍이 기적창조의 불길로 타번지게 하자
7	3.19	정면돌파전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일관시키자
8	3.20	봄철위생월간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자
9	3.23	국가의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자
10	3.26	강력한 사상공세로 정면돌파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자
11	3.28	일군들은 정열적인 사색가, 실천가가 되자
12	3.30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자
13	4. 1	경제사업에서 국가적리익을 우선시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자
14	4. 7	당원들은 정면돌파전에서 선봉투사가 되자
15	4. 9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신념과 배짱으로 사회주의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16	4.12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자
17	4.17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채택된 공동결정서를 철저히 관철하자
18	4.1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자
19	4.20	새땅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침땅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이자
20	4.23	정면돌파전에서 집단주의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자
21	4.25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혁명무력은 필승불패이다
22	4.28	경제선동의 힘찬 포성으로 정면돌파전을 추동하자

2

일반적 특징

- ◆ 3~4월 합산 결과, 2018년과 2019년 보다 많은 총 22건의 사설 발표
 - 2018년 15건(3월 10건, 4월 5건), 2019년 18건(3월 9건, 4월 9건)
 - 본격적인 정면돌파전 추진 시점에 맞춰 정치사상적 추동 필요
 - 2018년 4월 5건에 불과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조성된 평화국면의 영향으로 대내문제보다는 대외문제에 집중한 탓일 가능성 주목(4.27 판문점 회담과 6.12 싱가포르회담을 앞둔 시점)
- ◆ 분야별로 보면, 정치·사상분야가 절반 이상(13건)이고 경제분야 4건, 사회문화분야 4건, 기타 1건 차지
 - 당 기관지의 특성상 정치·사상분야가 많을 수밖에 없으나 주어진 정세의 영향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
- ◆ 1~2월과 달리, 코로나-19를 직접 다룬 사설이 없고 간접적으로 언급한 사설(3월 30일자, 3월 23일자)만 존재
 - 우월한 방역활동 덕분에 ‘코로나 청정국가’ 이미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일 가능성
- ◆ 김정은이 직접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했다는 사실 확인
 - 향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김정은주의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가능성 시사

- ◆ 정면돌파전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백두산정신이 핵심 실천담론으로 기능할 가능성 다대
 -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혁명적 군인정신과 같이, 백두산정신도 자력갱생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 낙관주의로 분화·확장
- ◆ 평양종합병원 완공을 대표적인 당 창건 75주년 기념사업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 표명
 - 김정은이 직접 당 창건 75주년 이전까지 완공 목표 시한을 제시하고 모든 물자와 노력 우선 공급 지시
 - 평양종합병원은 삼지연시 꾸리기 3단계 사업이나 원산갈마해안관광도시 조성사업과 달리 인민대중제일주의와의 직접적 상합성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
- ◆ 리만건·박태덕 당 부위원장 해임 조치가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반하는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간부들의 각종 일탈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경고
 - 엄간관민(嚴幹寬民)으로 인민들의 지지 도모
- ◆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민 동요와 이탈 방지를 위해 도덕기강 확립, 우리식 문화와 생활양식 고수, 준법투쟁 강화 독려
 - 정면돌파전 수행에서 주민 동요와 이탈은 노력동원에 큰 차질 초래
 - 계몽적 방식(도덕기강 확립과 우리식 문화와 생활양식 고수)과 강제적 방식(법률과 규정 준수) 총동원
- ◆ 경제사업에서 국가이익 우선 및 정면돌파전에서 집단주의 위력 발휘 촉구
 -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반드시 동조적이지 않다는 북한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국가의 대응
 - 경제사업에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관리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가이익 우선주의와 집단주의의 지배적 확산이 긴급

◆ 김일성 생일(태양절) 기념 사설 지연 보도

- 일반적으로 매년 4월 15일에 기념 사설을 보도하는 것이 상례이나 사흘 후인 4월 18일 보도
- 김정은의 4월 15일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불참과 더불어 특이 동향의 하나로 향후 관련 동향 예의 주시 필요

◆ 4월 11일 정치국회의에서 일부 정책의 조정·변경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조정·변경의 이유로 인민대중제일주의 논리 제시

- 인민대중제일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민의 생명과 안전(코로나-19 대응) 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으므로 경제정책에서의 일부 조정·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논리 활용

◆ 조선인민혁명군(비정규군) 창건일(1932.4.25) 관련 기념사설 보도

- 2018년 건군절을 조선인민군(정규군) 창건일(1948.2.8.)로 변경한 이후 기념사설 미보도
- 정면돌파전 수행 과정에서 항일혁명 1세대 따라배우기를 중시해야 하는 상황과의 모순 해결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5월 24일 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을 국가명절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정령 공포

◆ 산림조성사업 독려 사설(3월 2일자)과 새땅찾기사업 독려 사설(4월 20일자)에서의 모순 주장 전개

- 전자에서는 산지 개간을 반대하는 듯한 논지이지만 후자에서는 인정하는 듯한 논조 구사
- 내부적으로 정책적 혼선 또는 편집 상의 오류일 가능성 주목

3

개별 사설 분석

3월

① 오늘은 식수절이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끓이며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산림조성사업에 적극 참가하자(3.2)

○ 식수절 39주년 기념 사설 성격

- 1998년까지는 4월 6일이었다가 1999년부터 3월 2일로 변경

○ 산림조성사업을 정치적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내년 식수절 40주년을 앞두고 동 사업에서의 성과 독려

- 김정은 집권 이후 산림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산지를 농지로 개발하는 일을 금지해 온 추세와 부합

* “산림조성사업은 단순한 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 양묘장 건설 성과에서 “군민협동작전”을 내세워 군대의 역할을 부각하는 동시에 “산림 복구전투를 애국심 검열의 마당”이라고 하여 산림조성사업을 애국사업으로 규정하고 김정일 애국주의와도 연계

○ 산림조성사업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 제시

- (김정일 애국주의 소중히 간직) 산림조성사업은 김정일의 애국 치적사업
- (수종이 좋은 나무심기) 푸른 산으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쓸모 있는 산으로 전환하는 사업 필요

* “김정은이 작명한 금야흑송 확산 및 밤나무, 잣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배나무, 돌배나무와 머루, 다래, 산딸기 등 산열매 식수 독려

- (철저한 과학화) △선진과학기술 도입 및 보급사업 적극 전개 △풍토에 맞는 수종 육종 및 전파
- (산림보호사업에서의 주인의식) △봄철 병해충해 예찰사업 강화 △산불 방지 △연료 및 건자재 구입 명목의 산림훼손 금지
- (당 조직들의 역할 제고) △나무심기와 보호관리사업을 위한 정치사업 강화 △산림복구 전투지휘부의 계획과 집행 강화 △산림담당구역 지정과 엄격한 담당책임제 실시

○ 북한은 산림협력·농업협력과 같은 개발협력에 관심 표명

- 특히, 양묘장 건설과 관련한 협력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북 제재로 인해 양묘장 건설에 필요한 장비 반입이 어려우므로 일단 지식공유사업 차원에서 접근 필요

②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본태를 확고히 고수해나가자(3.5)

○ 2월 28일 개최한 정치국 확대회의 후속 사설 성격

- 동 회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 △당의 대열과 전투력 강화 △당면한 정치, 군사, 경제적 과업 수행 방도 △코로나-19 대책들이 의제로 다루어 졌다고 소개
- 코로나-19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이자 정수로 정식화한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과 연계함으로써 간부들의 각성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이자 정수”이며 “당의 정치이념이고 존재방식이며 활동원칙”

○ 리만건·박태덕 당 부위원장 해임 조치가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반하는 행위에서 비롯 되었음을 확인

- * “이번 회의는 인민위에 군림하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인식, 재확인시킨 중대한 계기”였으며 “비당적 행위와 특세, 특권,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들이 집중 비판”
- * “인민을 천시하고 깔보는 사소한 현상에 대하여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고 인민이 부여한 권한을 악용하여 특권과 특세를 부릴때는 그가 누구이든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단호히 칼을 들이댐”

○ 앞으로도 간부들에 대한 처벌·통제 지속 의지 표명

- 핵심간부들의 부정부패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간부들을 통제하고 인민들의 지지로도모하려는 엄간관민(嚴幹寬民) 및 일석이조 효과 의도
- *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쟁을 선포하고 끝장을 볼 때까지 강도높이 벌려나가려는 확고한 립장을 재천명”

○ 이번 회의가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멸사복무정신을 과시하는 계기였음을 강조

- 과거 북부지역 홍수피해 시 당국의 전폭적 지원 사례를 들어 코로나-19와 관련 초기의 강도 높은 대응 성과를 자랑
- * “국가의 긴급조치에 따라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의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위생방역체계가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되었으며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이 선제적으로 완전히 차단봉쇄되고 강력한 수준의 방역대책들이 시행”

○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정면돌파전을 연계하면서 3가지 과업 제시

- (김정은의 인민사랑 따라배우기)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받들 듯이 인민을 대하는 것처럼 인민을 “어렵게 대하고 무한히 존대”할 것
- *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높이에 천만분의 일도 따라서지 못하는 자신들을 자책하며 끊임없이 단련해 나가야 한다”
- (당사업 전반에서의 새로운 전환 일으키기) △당 기강 확립을 위해 간부들과 당 일군들의 철저한 당 생활 및 비판과 사상투쟁 강화 △반인민대중제일주의 현상과의 투쟁 △세도, 관료주의와 같은 낡은 일본새와의 단호한 결별
- * “직권에 눌러 그릇된 현상을 보고도 비판하지 않는 현상, 나타난 결함을 무원칙하게 싸고돌면서 조장시키는 비당적인 행위를 말끔히 일소”
- (정치국확대회의에서 제시된 과업 철저 관철) △내각과 각 경제기관들의 경제작전과 지휘를 당적으로 추동 △국가방역체계에서의 어떠한 특수도 불허 △평양시와 지방의 살림집 건설 적극 추진

③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더욱 철저히 세우자(3.7)

-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입각한 간부 통제와 도덕기강 확립에 기초한 사회 통제 강화 의도
 - * “경제적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사상문화건설, 도덕건설을 양보하면 일심단결도 지켜낼 수 없고 혁명적 규률과 질서도 세울 수 없다”
-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과 브르쥬아사상문화 침투 공세” 강화를 사회적 도덕 기강 확립의 정당성 명분으로 활용
 - 제재 장기화 속에서 코로나-19 방역 차원의 과도한 사회 통제 조치로 인한 민심 이반에 대응할 필요성
- 정면돌파전에서 도덕기풍 확립을 위한 5가지 과제 제시
 - (수령에 대한 충실성 과시) 김정은의 은혜에 대한 보답
 - *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주시고 그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가시는 위대한 은인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도덕의리심”
 - (온 사회의 혁명적·자각적 도덕생활기풍 확립) △혁명선배 존대 및 그들의 가족 돌봄 △상하·혁명동지 간 예의도덕 준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위로와 고무 △부모, 부부, 형제 간 존중과 사랑 △군인에 대한 원호 △공중도덕과 사회질서 준수
 - (도덕기강 해이 현상과의 전군중적·전사회적 투쟁) △비도덕적·비양심적·비문화적 현상과의 투쟁 및 위반자들에 대한 교양 강화 △도덕기강확립을 위한 주인의식 자각 등
 - (일군들의 도덕기강 모범 보이기) △대중의 존경을 받는 인격자 되기 △특수화, 특전, 특혜 현상 경계 △가정교양 강화
 - (사회주의도덕기풍 확립을 위한 전사회적 사상교양 열풍 일으키기) △각급 당 및 근로 단체들의 도덕교양 선행 및 대중들의 비사회주의·비도덕적 현상 배격 유도 △학생과 여성에 대한 도덕교양 강화

④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조선여성들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자(3.8)

- 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 날) 110주년을 맞이하여 정면돌파전 수행에서 여성들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사설
- 김일성·김정일의 여성 업적 열거에 이어 김정은의 업적 소개
 - 김일성 :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창립(1945.11.18)과 남녀평등권법령 공표(1946.7.30)
 - 김정일 : 여성동맹 발전 및 여성중시·여성존중의 정치 실시(특별한 제도적 확립 차원의 업적 부재)
 - 김정은 : 여성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령적 지침 마련,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식 병원 건축, 여성들의 존엄과 사회적 지위 강화
- 사회주의건설 과정에서 수행한 여성들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
 - (참된 혁명가) 여성동맹원들의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수령결사옹위정신 과시
 - (열렬한 애국자) 초음속 전투기 조종사, 중요 건설 돌격대원, 다수확운동의 선구자와 같은 역할 수행
 - (사회주의 대화원 원예사) 세계적으로 만연하는 여성천시, 여성학대, 여성차별, 여성 상대 범죄 현상과 달리, 북한의 여성들은 어머니, 아내, 며느리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
- 정면돌파전에서 수행해야 할 여성들의 3가지 역할 제시
 - (수령의 사상과 업적 빛내기)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답사 적극 참가 △당의 노선과 방침 철저히 관철
 - (혁명적 기상 떨치기) 농업부문, 경공업부문, 중요대상 건설부문, 과학, 교육, 보건 부문에서의 헌신
 - (사회주의 미풍양식 고수) △자녀 육성 △예의도덕과 공중도덕 준수 및 고상하고 건전한 옷차림과 몸단장 △자기의 거리와 마을, 일터에서의 사회주의 선경화

- 특히, 시장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여성의 사회활동 특성을 반영, 수매사업을 비롯한 부강번영 사업에서의 선도적 역할 주문

⑤ 봄철국토관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3.9)

○ 봄철 여러 국토관리사업을 통한 경제 전반에서의 유리한 조건 마련 촉구

- 식목, 도로건설 및 보수, 강·하천 정리뿐만 아니라,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및 여러 공업부문에서의 활력을 위한 여건 조성 필요성 제기
- 특히,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작년 태풍 13호(링링) 피해 최소화 성과 강조
- 북한은 작년 9월 7일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개최하여 태풍 13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언급이 없는 것이 특이
- 한편, 자연재해는 많은 재산 피해와 노력 동원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자재와 노력을 절약하는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자연재해 예방=절약·증산)

○ 국토관리사업을 위한 여러 과제들을 제시

- (산림조성사업) △식목과 산림 개조를 통한 산열매나무 심기와 약초산 조성 △산불과 병충해 방지 대책 마련 △산림 보호 △각 도 양묘장과 각 도 산림과학연구소, 시와 군의 모체 양묘장, 나무모 온실 건설
- (도로건설과 보수관리사업) △위험장소와 불량장소 철거 탐색 및 보수 △강하천 제방 공사와 강바닥 파기(준설) 등 홍수피해 방지대책 마련
- (원림녹화와 도시경영사업 개선) △우량 수종 나무와 꽃관목 다량 식수 △관상용 풀 탐색·이용 △화초온실과 원림양묘장 개보수
- (생태환경 보호사업) △세계적인 생태보호 동향에 맞춰 설비와 생산공정들에서의 환경파괴 대책 마련 △산업폐수정화시설 제대로 구축
- 이밖에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 활발히 전개 △양어장 건설·보수 및 현실성 있는 수산자원보호증식계획 수립 △자연에너지 적극 이용 △간석지와 물길 건설 등 자연개조 사업 전개 △국토관리총동원지휘부들의 역할 제고 등

- 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초특급방역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관리사업을 위한 노력 동원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합리적 노력 동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이

⑥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열풍이 기적창조의 불길로 타번지게 하자(3.16)

○ 2019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 간 전국적으로 약 5만 명 참가 사실 공개

- 북한의 전체 인구를 2578만 명으로 추산할 때, 전체인구의 0.2%에 불과하며, 연간 20만 명 참가할 경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시한다면 100년 이상 소요
- 작년 12월 김정은의 “백두산 군마행군”을 시작으로 전국 당선전일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국 혁명사적일군, 직맹·농근맹·여맹 등 근로단체일군, 조선인민내무군 간부 등 당원, 근로자, 인민군, 대학생들이 우선 참여

○ “전례없는 격난과 도전 속에서” 당원들과 일군들이 동 행사를 통해 백두산정신으로 무장하고 투쟁할 것을 촉구

- *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열풍은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견결한 투사들로 키우는 혁명적단련의 폭풍”

○ 동 행사 참가자와 불참자를 차별화하여 경쟁심을 유발하는 한편, 정면돌파전에 임하는 사람들의 사상의식 평가 근거로 활용할 여지 시사

- * “허리치는 생눈길을 헤치면서 백두의 칼바람맛을 본 사람들은 사상정신적면모에 있어서나 투쟁기풍에 있어서 뚜렷이 구별”
- *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가고 있는 선구자들도 <백두산대학>에서 배운 사람들이고 시대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는 전형단위들도 백두산정신으로 투쟁하는 단위들”

○ 동 행사는 백두산정신으로 정면돌파전의 목표를 달성하자는 취지이며, 백두산정신 안에 자력갱생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 낙관주의가 내포되어있음을 강조

- 백두산정신에 입각하여 삼지연꾸리기 3단계 공사, 단천발전소 건설, 순천린비료공장 건설과 같은 정면돌파전의 대표 사업 완수 독려

- * 혁명적 낙관주의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을 풍미했던 담론으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와 같은 대표적 구호가 있음.

○ 동 행사 추진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자세 제시

- (내실 있게 추진) 횡수보다 내용을 지향하고 관광식·유람식 행사 지양
- (백두산정신으로 사회주의강국 건설 추진) 백두산정신(백절불굴과 자력갱생)을 본받아 직면한 난관과 애로를 자체의 힘으로 돌파
- (일군들은 백두산정신 구현의 기수)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처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 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구호를 좌우명화
- (당조직들의 역할 제고)

⑦ 정면돌파전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일관시키자(3.19)

○ 3월 18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 기념 사설 성격

- 김정은이 착공식 연설에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인민대중제일주의)를 역설하였으므로,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것으로 보답할 것을 촉구

○ 정면돌파전은 단순히 난국 타개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제일주의 관철을 위한 인민복무전 이라고 하면서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대표 모델로 제시

- 평양종합병원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전까지 반드시 완공해야 할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부상

○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까지 평양종합병원을 완성하기 위한 과제 제시

- (기한 내 무조건 완공) △속도전, 돌격전, 철야전, 전격전 전개 △필요한 자재와 설비 책임 보장 △최상의 수준에서 공사의 질 보장
-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기 위한 총진군) 군사·안보적 성과 과시에 대한 언급 없이 경제 건설 성과와 자력갱생 대진군 언급

- (당 조직들의 전투력 제고) 특히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위한 조직정치사업과 적극적 지원 기풍 확립 및 사상공세 강화 촉구

⑧ 봄철위생월간사업에 적극 펼쳐나서자(3.20)

○ 매년 3~4월 진행하는 봄철위생월간사업 기념 사설

- 금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특별히 사설 보도
 - * “올해의 봄철위생월간사업은 온 나라가 진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비상방역사업을 벌려나가고 있는 때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중요성과 의의는 더욱 부각”
- 2018년과 2019년에는 관련 사설 부재
-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 금년 위생월간사업을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지시문 하달 사실 공개

○ 비상방역사업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군중 동원 차원에서 몇 가지 과제 제시

-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통일적 지휘에 절대복종) △국제적인 방역활동 예의 주시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도하에 신속한 대응태세 유지 △정상적인 비상방역사업 정형 총화와 문제점 시급히 퇴치
- (격리장소에 대한 엄격한 위생관리와 소독) △격리장소와 주변관리에서 보건위생학적 요구 엄격히 준수 △격리장소에 대한 물리적·방역학적 차단 △격리장소와 주변에 대한 엄격한 소독
- (기타) △領海와 대동강 유역 격리 선박 유출 오수 처리 대책 마련 △상하수도망 정비·보수 및 오수정화장 폐수 철저 소독과 수원지 수질검사 정기 실시 △질병의 발생 근원 철저 제거 및 위생문화적 환경 조성 △국가적인 초특급방역조치에 맞는 위생월간사업 관련 합리적 노력동원 조직
- 3월 9일자 사설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노력동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코로나-19 방역 동원과 여타의 동원 사업의 중복으로 노력 동원의 어려움 시사

⑨ 국가의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자(3.23)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법과 규정 준수를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규정한 가운데 사회 통제를 정당화하고 법적 강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설

- * “신형코로나비루스전염병을 막기 위한 사업이 강도높이 전개되고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국가비상방역체계안에서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문제”
- *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매 공민이 중앙과 지방의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들의 지휘와 통제에 무조건 절대복종하고 제정된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법적 감시를 강화”
- 코로나-19 비상방역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시장활동 위축으로 인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민들이 당국의 통제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

○ 법과 규정 준수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

- (혁명적 준법기풍 철저 확립) △준법이 인민과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 명심 △사회주의법의 본질과 우월성,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이해 필요
- (의무적 준법기풍 철저 확립) △국가 발전적 특수는 가능해도 불법적 특수는 불허 △경제분야의 법규범과 규정 철저 준수 및 국가계획 위반도 위법
- “국가 발전적 특수는 허용”한다는 것은 어떠한 특수도 불허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특수의 예외화’는 코로나-19 대처와 경제발전을 병행하기 위한 교육지책
- 국가계획 위반을 위법사항에 포함한 것 역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가계획 수행 및 달성을 위한 당국의 고민이 내포
- * “국가의 결정과 지시, 국가계획을 흥정하는 것은 자유주의, 패배주의의 표현이며 위법행위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제정된 규률과 질서들을 무조건 지키는 혁명적 기풍을 확립”
- (기타) △일군들의 선도적 역할 강화 △당조직들의 준법교양과 법적투쟁의 강도 제고 △법기관들과 법일군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

⑩ 강력한 사상공세로 정면돌파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자(3.26)

○ 사상공세를 통한 인민대중의 정신력 고양을 혁명의 승패와 진퇴를 가르는 관건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정면돌파전을 사상전으로 규정

*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도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비약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

○ 현재 사상전 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기본 요구”들을 설명

- (반공화국압살 책동 격파 및 혁명진지와 계급진지 고수) △가시적인 성과 일변도에 치우치지 말고 사상사업을 한시도 소홀히 하지 말 것(전문화, 과학화, 현대화와 사상사업이 병행하기 어려운 애로 토로) △적들의 반공화국압살과 내부와해 책동 속에서 강도 높은 사상공세 전개만이 사회주의 옹호 고수 가능 △순천린비료공장 건설,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공사, 평양종합병원 건설 등에서의 정신력 분출 사례 설명
-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 창조) △사상전은 자력갱생 대진군의 활력 △혁명적 사상공세를 통한 애국심 고무와 선전선동 강화

○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상전 과제들 제시

- (충실성 교양) 김정은과 당에 대한 충성은 가장 뜨거운 애국이라는 내용의 충실성 교양 강화
- (사상사업에 화력 집중) △당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과 여러 문제와 난관들을 시대적 과제와 결부시켜 설득력 있게 설명 △첨입(添入)식, 집초(集草)식 사상 공세 전개
-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 퇴치) △심장에 닿지 않는 구태의연하고 도식적이며 경직적인 사상사업이 아닌 친인민적, 친현실적(김정은 시대 유행어) 사업 전개 △비현실적이고 요란하며 과장된 표현이 아닌 인민들이 선호, 인정, 호응할 수 있는 진실성과 통속성을 통한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입병 등 낡은 사상잔재 척결
- (당 선전일군들 사이에서 패배주의 철저 극복 및 개인 맞춤형 사상사업 전개) △선대 수령의 유훈과 당 정책을 대중들에게 논리정연하게 해설·선전 △특히, 초급당 선전일군들은 능숙한 언변과 친근감, 교감술, 따뜻한 친화력 필요

11 일군들은 정열적인 사색가, 실천가가 되자(3.28)

○ 방대한 과업, 적지 않은 시련과 난관 속에서 당 일군에게 자기 단위의 사업에 대해 꾸준히 사색하고 완강히 실천하는 자세 주문

- 대개 사설 말미에 당 일군들의 역할과 자세를 주문하는 형식을 취한 것과 달리, 당 일군들의 자세를 직접 조준
- 당 일군들이 상부의 요구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 이를 위해 당 일군들이 견지해야 할 자세들을 제시

- (전사회적인 수자 중시 기풍 확립) △수자에 기초한 최대의 효율과 실리 보장 △최상의 수준에서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 보장 △자금과 자재,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최량화, 최적화된 해답 제시 △새로운 관점, 혁신적 안목과 대담한 실천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활력 있게 추진
- (자기 단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상관점 견지) △선진 단위와 세계적 발전 추세를 따라잡기 위한 사업 추진 △책임소재에 구애받지 않고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소심성과 소극성, 책임회피와 본위주의 사업태도 지양 △종업원들의 생활안정·향상 책임 △과학 기술역량과 기능공 육성 등 내적 동력 강화 △과학적 타산과 주도면밀한 연구에 기초한 실현가능한 자기식의 발전전략 모색
- (심도 있는 당정책 연구 및 무조건 집행 생활화) △자기 단위 발전을 위한 종자(선대 수령들의 교시) 틀어쥐기 △수박겉핥기식·땀때기식 사업 지양
- (현장의 목소리 청취) △탁상공론(冊床주의)과의 결별 △앞선 문제 요해 및 내부예비와 가능성 최대한 동원 △대중 속에서 창조적 지혜 구하기와 대중과 힘 합치기
- (당 일군들의 실력 제고) △경제관리지식과 최신 과학기술 보유 및 실천능력 구비 △모범단위의 경험전수 및 세계적 발전 추세 파악 △낡은 지식 폐기 및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지식 습득 등

12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고수하고 빛내여 나가자(3.30)

○ 3월 18일 착공한 평양종합병원을 북한식의 독특한 문명 창조 의 일환으로 설명

- 당 창건 75주년 기념 계기 평양종합병원 완공을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이자 ‘사회주의 문명국건설’의 성과로 선전하려는 의도

○ 사회주의강국을 정치·군사·경제분야만이 아니라 문화분야에서도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나라로 정의함으로써 북한 사회 내 비사회주의적 문화와 생활양식 확산에 대한 우려 시사

- 북한식 사상문화와 생활양식 고수 사업은 평화적 이행전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에 맞서기 위한 심각한 정치투쟁이자 계급투쟁으로 규정(단순한 실무적 사업이 아님을 강조)

* “패배주의, 건달식일본새, 안일해이와 같은 불건전하고 라태한 요소들은 다 사상적변질의 표현” 이라고 하면서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지식수준을 지니고 사업과 생활을 보다 전투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

○ 북한식 생활문화와 생활양식 철저 확립을 위한 자세들을 제시

-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이 제일이라는 관점 견지) △수령의 영도 하에 만들어진 문화와 생활양식이므로 강한 민족적 자존심과 락관주의 정신 체현 △직장과 가정, 공공장소에서의 도덕과 질서 준수 및 상하관계,父子관계, 연장자와 연소자관계에서 예의와 도덕 준수 △특히, 청소년들의 사치와 허례허식 배격
- 특별히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사치와 허례허식 배격을 주문하고 있는 점이 특이
- (비도덕적·비문화적 이색풍조와의 비타협적이고 무자비한 투쟁) △비도덕적 이색풍조 방치는 사회와 혁명의 붕괴 초래 △제국주의자들의 사소한 사상문화적 침투 척결 △극장과 영화관 등 공공장소들에서의 비문화적 행동과 특권, 특세, 그리고 음주불량행위 금지 △비도덕적·비문화적 행위 방관자들에 대한 교양 강화
- (당 조직들의 역할 제고)

3

개별 사설 분석

4월

① 경제사업에서 국가적리익을 우선시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자(4.1)

○ 모든 부문과 단위들의 기업전략과 경영전략 수립 및 집행 시 본위주의를 척결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우선시 할 것을 촉구

- △국력 강화 및 인민수요 충족이 북한식 자립경제의 목적(돈벌이 목적의 자본주의 경제와 차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윤이고 실리 △ 개별적 이익 추구현상 절대 불용

- 철저한 본위주의 극복만이 경제건설에서 효율적 역량 집중이 가능하다고 주장

* “본위주의는 경제건설에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데 저애를 주고 사회주의경제관리 질서를 헝클어뜨리는 해독적작용”을 하므로 “본위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경제건설에서 힘을 집중해야 할 부문에 집중”

- 시장 활성화 추세 속에서 ‘경제사업에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 강화와 더불어 경제 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 의지 반영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국가적리익을 우선시하고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관리 밑에 경제활동을 진행해야”

○ 국가이익 선행 기풍 확립과 정면돌파전 승리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어 개별적 이익 추구 현상이 만연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 (모든 문제를 국가 이익 관점에 복종) 국가의 번영 속에 개인의 행복과 미래 보장이 가능하며 자력갱생을 제대로 이해할 것을 요구

* “개별적인 단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제각기 벌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자력갱생이 아님”

- (국가계획 무조건 집행 규율 확립) △국가계획을 법적 과제로 인식 △국가 계획집행 혼란조성 현상 불용 △계획수행 애로 발생 시 해외가 아닌 국내 여러 단위들과의 협동적 해결 우선 추구 △자기 단위 수익 우선으로 인한 다른 단위와의 유기적 연계 파괴현상 극복
 - * “국가의 전략지표, 중앙지표들이 계획을 집행하지 않고서는 못견디게 강한 규률을 세워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가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 (경제사업에서의 내각책임제 강화) △현존 경제토대의 효과적 이용, 국가재정 강화, 생산 단위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경제작전 및 치밀한 조직사업 전개 △내각의 통일적 지도와 지휘 보장 △모든 경제적 잠재력과 가능성 동원·이용 및 생산자원 이용의 전략적 집중성 보장을 위한 주동적 대책 수립 △하부단위들에 대한 철저한 장악과 지도를 통한 계획목표 달성 △내각의 결정과 지시 무조건 집행을 위한 강한 규률과 질서 확립
- (국가이익 선행 풍조 확립을 위한 당 조직들의 역할 제고)

② 당원들은 정면돌파전에서 선봉투사가 되자(4.7)

-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면돌파전에서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 수행 당부
 - * “혁명앞에 시련이 겹쌓이고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누구보다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자각하고 떨쳐나서야 할 사람들이 다름아닌 우리 당원들”
 - 4월 10일 예정된 최고인민회의와 이에 앞서 개최할 정치국회의를 앞두고 당적 결속 도모 목적
 - * 최고인민회의는 4월 12일 이를 지연 개최하였고, 정치국회의는 하루 전인 4월 11일에 개최
- 당 창건 75주년을 맞이하여 “위대한 어머니 당”의 은혜에 “높은 정치적 열의와 로력적 성과”로 보답하는 것이 당원들의 본분이자 도리라고 주장
 - * “당원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선두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우며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 나갈 때 적대세력들의 온갖 방해책동이 물거품”

○ 정면돌파전의 선두에서 당원들이 견지해야 할 모습들을 제시

- (능숙한 정치활동가) △사상결정론에 입각한 당 정책 관철 분위기 조성 △군중 상대 설득력 있는 해설 및 군중들의 애로사항 해소 노력 △군중에 대한 인정미 발현 및 결함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머니식 포용 △대중과 고락을 함께하는 마음과의 사업 심도 있게 진행
- (돌격전의 기수) △힘든 일에 대한 솔선수범과 전진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 △시대가 부여한 임무수행 완수(삼지연시 건설 사례 모범) △당에 대한 헌신, 위험한 순간 회피, 패배주의 등에 대한 회고와 반성
- (자력갱생의 선구자) △자재와 설비 등 조건보장에 수동적이거나 의존적 태도를 버리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의 출로 확보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어 과학기술에 의거한 문제해결 기풍 확립
- (불의에 비타협적인 붉은 칼날) △불합리와 도식주의 척결 투쟁 △분위주의와 위법행위, 특권·특세·군림현상과의 투쟁 △형식적·요령적·수동적 사업방식 및 수입병과의 투쟁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 무력화를 위한 정치사상공세 강화 및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 고수
- * “나라의 이익은 안중에 없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리익만을 먼저 생각하며 국가의 법을 어기는 현상, 특권, 특세를 쓰며 인민위에 군림하는 현상과의 사상전을 강하게 벌려야 한다. 현실발전에는 아랑곳없이 아직도 틀에 맞추어 기계적으로, 거충다짐식으로 일하는 사람들,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앉아 멍개거나 수입병에 물젖어 남을 넘겨다보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③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신념과 배짱으로 사회주의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자(4.9)

○ 김정일 국방위원장 첫 추대 기념(1993.4.9) 사설 성격

- 김정일은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1991년 12월 인민군 최고사령관, 1993년 4월 국방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군권 승계
- * “주체 82(1993)년 4월 9일은 주체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사회주의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로정에서 새로운 전환의 리정표를 아로새긴 의의깊은 날”

- 2018년은 ‘공화국의 강성번영 업적’, 2019년은 ‘국가건설 업적’, 올해는 ‘신념과 배짱’을 주제로 정하고 있어 정면돌파전 분위기 반영
- “제국주의연합세력에 의한 사회주의체계 붕괴” 속에서 전개된 김정일의 ‘선군혁명 실록’은 신념과 배짱의 응결체라고 주장

○ 김정일의 신념과 배짱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정면돌파전에서 답습할 것을 촉구

- (자주의 고무적 기치) “적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단호히 맞서시며 혁명과 건설을 배심있게 떠밀어오신 현명한 령도”
- (우리식 부강번영 활로 개척의 원동력) “자기 힘에 대한 확신,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배심은 새로운 비약과 전진의 귀중한 밑천”
-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추동력) “오늘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가 비상히 높아지고 주체적국방공업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의 결과”

○ 정면돌파전 수행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

- (김정일의 선군혁명실록 깊이 체득) 특히 “김정일 애국주의와 애국념원, 강국념원” 구현 주문
-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 받들기)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을 매개로 김정일식과 김정은식 사상과 영도를 동일시하면서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철저히 확립 요구
- *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싸워나가는 과정은 곧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념과 배짱을 따라 배우고 구현해나가는 과정”
- (정면돌파전의 활로 개척)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가중될수록 자신만만한 배짱과 불타는 적개심으로 난관을 강행돌파”할 것을 독려
- (당 조직들과 일군들의 역할 제고) 특히 “새세대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배짱가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 더욱 강화” 요구

④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자(4.12)

○ 2019년 4월 12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을 기념하는 사설

- 동시에 2012년 4월 13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한 사실도 간단히 언급
- *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시작되던 력사의 분수령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
- 정치적 의미가 더 큰 2012년 행사보다 지난 해 행사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이유는 2012년 행사의 불완전하고 과도기적 성격 때문인 것으로 판단
- * 정치적 의미 부여의 정도는 사설보도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
- 2012년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처음으로 국가의 최고직책에 올랐으나, 위원장이 아닌 ‘제1위원장’ 직책명으로 추대

○ 정해진 규범에 따라 당과 국가의 주요 기구회의 정기 개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식화 등 김정은이 당과 국가건설에서 지난 10년 간 이룩한 업적 설명

-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 전환기”에 당과 국가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 제고 사업을 완벽하게 해결
- *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 전환기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2010년 9월 28일 노동당 3차 대표자회부터 노동당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2012년 4월 11일 노동당 4차 대표자회까지 대략 1년 6개월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 지난 8년간 난관과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세기적인 기적창조의 새로운 력사” 전개
- * “지난 8년간 겹쌓인 난관과 엄혹한 도전과 시련을 맞받아나가면서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가 더욱 세차게 휘날리게 하였다”
-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과 국가사업 전반 정규화) △당과 국가의 중요 회의 정상 소집을 통한 토의 및 결정(“규범과 질서에 따라 규칙적 사업 진행”)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철저 확립으로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 관철 체계 수립

- 자칫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는 당과 국가사업이 비정규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에 대비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며”라는 부가적 표현을 필첨(必添)
-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당풍·국풍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 및 당과 국가건설의 근본이념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 대중에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당건설과 국가활동의 기본요구로 확립
- 김정일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했다는 표현으로 볼 때, 향후 인민대중제일주의 자체를 김정일주의로 삼거나 김정일주의의 핵심담론으로 활용할 가능성 다대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당과 국가건설의 근본이념”
- 당과 국가 차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을 선전
 - *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억만금도 아낌없이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이는 것이 우리 당이며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건설전투들을 중단없이 내밀고 사회주의적 시책들을 끊임없이 증대시켜나가는 것이 우리 국가”
- (국가와 인민의 안전과 행복,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위력한 담보 마련) △외교나 구걸이 아닌 총대에 의한 안전보장 신조 △단기간내 최강의 국가방위력·전쟁억제력 완성을 통해 “건국 이래 가장 큰 산을 넘는 대승리” 성취 △경공업의 비약적 발전과 농업부문에서의 최고생산년도수준 돌파 등

○ 사회주의 강국 실현을 위한 세 가지 과제 제시

-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 받들기) △김정은 결사옹위 △당에서 정해진 시간과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당의 결정과 지시 결사관철 및 완벽 수행
- (당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 백방 강화) △전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투쟁 강화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정치적 지도와 정책적 지도 강화 △친인민적·친현실적 방향으로 당 사업 혁신 및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 선행 △당 기층조직들의 진취적이며 기백있는 사업 기풍 조성

- (모든 전선에서의 끊임없는 전진발전) △맡겨진 과업 무조건 수행 △질 좋은 제품 생산 △내재한 결함과 부족점 개선을 위한 적시 대책 마련 △자력갱생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적은 노력과 재재로 더 많은 재부 창출 △원료·자재·설비의 국산화 비중 증대 및 내부예비 총동원 △과학기술에 의거한 사업 진행 및 혁명적 학습기풍 확립

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채택된 공동결정서를 철저히 관철하자(4.17)

○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지 4개월여 만인 4월 11일 개최한 노동당 정치국회의 설명 사설 성격

- 사설은 동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 수립 문제 △경제, 국방, 인민생활과 관련한 목표 및 투쟁과업과 방도가 제시되었다고 공개

* 정치국회의의 공동결정서도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을 계속 강화해나가며 올해 경제건설과 국방력강화사업,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무력기관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투쟁과업과 방도가 밝혀져있다”고 확인(“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의 진행” 로동신문. 4.12)

- 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일부 정책에서의 조정 사실 공개

*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성된 대내외환경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중앙위원회 제 7기 제 5차전원회의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일부 정책적과업들을 조정변경할데 대한 대책적문제들을 연구토의”

○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는 당의 존재방식”이라면서 경제건설과 코로나-19 대응에 당의 근본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녹아있다고 주장

* “인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중대한 정치적결단도 서슴없이 내리고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 일이라면 나라의 재부를 아낌없이 통째로 기울여온 것이 우리당”

○ 그러면서도 사회주의건설보다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사용, 경제건설보다 직면한 코로나-19 대응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해결과제임을 강조

*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기를 놀래우는 기적적성과들을 달성하였다고 하여도 인민의 생명안전에 조금이라도 해를 주고 인민의 행복한 생활에 그들이 지게 한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당의 뜻”

- 정치국회의의 첫 의제로 코로나-19 대처 문제를 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7기 5차 전원 회의에서 결정한 일부 정책 조정 사실 재확인
- * “이번 정치국회의에서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를 첫째 의정으로 토의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온 일부 정책적 과업까지 조정변경하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한 중요한 리유”

○ 정치국회의 공동결정서 관철을 위한 몇 가지 과제 제시

- (비상방역사업 계속 강화) △방역학적으로 완전 종식 때까지 국가비상방역사업 지속 추진 △각급 비상방역지휘부의 책임성 제고 △국경과 육·해·공에서의 바이러스 침투 공간 철저 차단을 위해 선제적이고 즉시적인 대책 수립 △강한 규율 확립을 통한 개인과 개별단위들의 위험 조성 불허 △이상 현상 발견 시 제때 보고
- (인민생활향상 안정 및 향상) △인민의 애로 해결 및 이익 실현 지원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관심 경주 △조건과 환경 탓을 하면서 인민 생활에 무관심한 현상과의 투쟁 전개
-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발휘) △내부예비와 잠재력 탐구 및 총동원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 실현 △과학기술자들의 애국심에 기초한 역할 증대
- (당 조직들의 역할 강화)
- 위에서 제시한 과제들만 보면, 7기 5차 전원회의 결정과 정치국확대회의(2.29) 결정 사항과 대동소이하며, 일부 정책에서 조정된 결과와 내용은 서서히 밝혀질 것이며 주로 경제정책 조정 예상

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자(4.18)

○ 김일성 생일(‘태양절’) 108주년 기념 사설 성격

- * “4월 15일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새 기원이 열리고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의 앞길에 광휘로운 서광이 밝아온 대경사의 날”

○ 김일성 생일 기념행사와 관련 과거와 다른 특이 동향 발생

- 집권 이후 매년 실시해 온 김정은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생략(북한 매체 미보도)
- 김일성 생일 당일(4.15) 기념사설을 보도하지 않고 3일 후 보도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2018.4.15.)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2019.4.15.)
- 이와 같은 특이 동향의 지속성 여부가 중요하며, 지속할 경우 수령제 및 수령론과 관련하여 수령 신격화 금지와 더불어 의미있는 변화

○ 김정일 시대의 당→군→정 프레임에서 당→정→군 프레임으로 확실히 전환하였음을 인정

- * “해방후 빈터에서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빛나가게 실현”

○ ‘백두의 혁명전통’ 담론을 통해 세습의 역사적 정당성 부여 및 ‘백두의 혁명전통’이 갖는 현재적 의미 설명

- * “조선혁명의 승리의 력사는 곧 백두의 혁명전통의 줄기찬 계승발전의 력사”
- (존엄과 자주권 수호의 보검) 정면돌파전사상에는 역경 속에서 자주적 길로 전진하려는 의지와 시련과 난관을 피하지 않고 맞받아 뚫고 나가려는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을 포함한 백두의 혁명전통 내포
- (사회주의건설 승리를 위한 활로 개척의 원동력) 연길폭탄정신 → 군자리혁명정신 → 천리마정신 → 정면돌파전사상이라는 자력갱생정신의 역사적 전통에 백두의 혁명전통이 관통
- (우리식 사회주의의 혁명적 본태와 우월성 과시의 초석) △주체성과 민족성 확고히 고수 △수령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혁명적 동지애는 일심단결의 근본원천 △집단주의 정신과 혁명적 낙관주의는 일심단결의 추동력 △혁명적 규율 확립과 질서 수립 및 생산문화·생활문화 확립 사업 심화
- * “일심단결 대풍모”의 사례로 현재 진행 중인 평양종합병원건설사업 제시

○ 백두의 혁명전통, 즉 백두산정신 계승을 위한 3가지 과제를 제시하면서 백두산혁명 전적지답사 열풍 지속 전개 촉구

- *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백두산정신을 만장약하고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주체조선의 백절불굴의 혁명적기상을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 (혁명전통교양 강화)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답사 열풍 세차게 전개 △교양대상의 준비 정도와 특성에 맞는 눈높이 교양
-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 받들기) △당중앙의 두리에 일심단결 △김정은만 믿고 따르기 △가식과 변심을 모르는 순결한 투사
- (백두산정신으로 정면돌파전의 진격로 개척) △올해의 혁명적 대경사를 빛내기 위한 총진군 박차 △삼지연시 꾸리기 3단계 사업 적극 추진
-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여러 사업 중에서 삼지연시 꾸리기 3단계 사업을 지목한 것은 동 사설이 백두의 혁명전통을 다루고 있기 때문
- 아울러 동 사업은 4월 11일 정치국회의에서 정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당 창건 기념일 이전 완공목표 유지

⑦ 새땅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침땅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이자(4.20)

○ 정면돌파전의 주타격방향인 농업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새땅찾기운동 전개를 독려하기 위한 사설

- * “알곡생산량은 부침땅의 면적과 정보당 수확고에 의해 결정된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것과 함께 새땅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지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 새땅찾기운동을 선대수령들의 영도업적을 빛내기 위한 애국사업으로 규정

- 김일성 : 간석지 건설의 설계도를 만들고 간석지 조사단 조직
- 김정일 : 대계도간석지 건설 등 새땅찾기 투쟁 영도
- 김정은 : 새땅찾기운동을 통한 알곡생산 면적 증대를 ‘농업발전의 5대 요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간석지 개간 등 부침땅면적 증대투쟁 전개를 위한 토의 결정

○ 새땅찾기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의 절실함 시현

- * “새땅예비는 그 어디에나 다 있다. 벌방지대에도 있고 산간지대에도 있다. 찾자고 하는 사람의 눈에는 새땅이 보이기마련이며 찾을수록 나오는 것이 새땅이다. 한뼘기의 땅이라도 더 찾아 알곡을 증산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이며 이런 애국자들의 대오가 늘어날 때 나라의 쌀독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

○ 새땅찾기운동을 위한 과제들 제시

- (새땅찾기에 대한 올바른 관점 견지) △정보당 수확고 증산만큼 중요 △새땅찾기를 잘하는 것이 애국농민
- (간석지 건설 박차) △방조제 축조가 수월하고 당장 경작이 가능한 간석지부터 개간 △강하천 관리를 통한 새땅찾기 △새로운 방조제 쌓기보다는 이미 쌓아놓은 간석지 신속 개간 △서해 간석지 사용을 위한 내부망공사 적극 추진
- (농촌지역에서의 과감한 운동 전개) △유실된 부침땅 원상복구 및 지적도 대비 감소 면적의 토지 찾아내기 △토지정리 완성을 통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빼기논밭 정리

⑧ 정면돌파전에서 집단주의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자(4.23)

○ 정면돌파전 수행에서 집단주의정신 발휘를 요구하는 사설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국경 통제 및 사회 격리 조치로 개인주의 현상이 만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
- * “개인주의, 리기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해야”

○ 집단주의 위력이 발휘된 역사적 사례들을 강조함으로써 집단주의정신의 현재적 의미 정당화

- *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도 집단주의는 우리의 혁명적진군의 힘있는 추동력”
- 전후 천리마운동과 1970년대 속도전운동을 거론한 가운데 ‘고난의 행군’ 시대인 1990년대는 특정 운동 언급 없이 집단주의 위력만 강조

○ 4월 1일자 사설에서도 촉구한 ‘국가이익 우선시’를 집단주의 맥락에서 접근

*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공민들이 국가적이익, 혁명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합쳐나가면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의 활력있는 전진으로 이어지게 된다”

○ 정면돌파전에서 집단주의 위력 발휘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

- (전체 인민의 집단주의정신 철저 무장) △집단이익 속에 개별이익이 있다는 사실 명심
△부문과 단위들 간 서로 도와주기 △개인주의, 리기주의, 본위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 척결 투쟁 전개
- (국가와 집단의 이익 우선시 기풍 확립) △인민경제사업에서 국가의 통일적 지휘에 복종하는 규율 확립 △사업 상 애로 제기 시 외국 의존보다는 국내 협동을 통해 해결하는 기풍 확립 △하루살이식, 땀때우기식 사업태도 타파 및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업을 설계하고 실천
-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원칙 철저 구현) △동지에 미풍 계속 발휘 △비 사회주의적 현상들과 나라의 이익보다 자기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위들과의 법적 투쟁 강화
- (일군들의 선구자적 역할) △국가적 이익 우선시하는 참된 애국자 △무거운 과제를 지고 완강히 돌진 △종업원들의 생활 보살피기와 애로사항 해결
- (당 조직의 역할 제고)

⑨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혁명무력은 필승불패이다(4.25)

○ 비정규군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1932년 4월 25일) 88주년 기념 사설

- 2017년까지 공식적인 건군절이었다가 2018년부터 정규군인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인 2월 8일로 건군절 변경

○ 건군절 변경 2년 만에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4.25) 위상 제고 조치 단행

- 2018년과 2019년에 없었던 기념 사설 게재

- 202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령 발표 1)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 4월 25일을 국가적 명절로 한다. 2) 해마다 4월 25일을 국가적 휴식일로 한다.
- 위와 같은 위상 제고 조치들은 정면돌파전 수행에서 ‘백두의 혁명전통’ 중시 필요성과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최고인민회의 정령, 로동신문, 2020.5.24)

○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적 당군 건설” 업적 소개

- 김일성 : 혁명무력에 대한 당의 영도 강화 차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설립하여 최고영도기관으로 자리매김
- 김정일 : 당의 영도는 혁명군대의 제일생명이라는 사상을 제시하고 전군김일성주의화 실현
- ‘당군’이란 당과 군대라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당적 영도’를 받는 군대로써 ‘당의 군대’와 동일한 의미로 판단

○ 김정은의 군에 대한 당적 영도 의지와 군 건설 업적 부각

- 김정은은 “혁명무력을 자기의 혁명적 본성에 충실한 당의 무장력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주장, 군에 대한 당적 영도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
-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 시기(후계자 시절)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 건설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였다고 주장

○ 군에 대한 당적 영도의 세가지 메카니즘 제시

-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 △혁명군대의 최고 위력은 사상의 위력 △김일성-김정일주의와 백두산정신은 인민군대의 가치
- (당의 영도적 권위 백방으로 옹위) △당의 권위 옹호와 영도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당의 명령과 지시에 무조건 절대 복종

- * “당중앙결사옹위의 기치를 제일 먼저 들고 당의 구상과 의도를 앞장에서 관철해나간것도 인민 군대이며 혁명대오에 끼여든 음모군, 배신자들의 책동을 무자비하게 쳐갈긴것도 우리 무장력”
- (당의 군사전략사상과 주체전법으로 무장) △사상정신력에 전략전술이 결합되면 적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 능히 격파 △당의 군사전략전술과 주체전법은 만능의 보검

○ 당 창건 75주년을 맞이하여 군대의 역할과 과제 제시

- (김일성과 김정일의 군 건설 업적 계승)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기치 들기 등
- (김정은의 유일적 영군체계 철저 확립) △김정은이 제시한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실현 박차 △백두혈통과 당중앙을 굳건히 보위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하에 일사분란 군풍과 군기 확립
- “혁명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오직 백두의 혈통만을 순결하게 이어나가고”라는 후계 체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민감한 표현 사용
- (백두산정신으로 철저 무장) △백두산정신은 항일혁명정신들 중 중핵을 이루는 정신 △지휘성원들은 <백두산대학>의 학생이 되어 백두산정신으로 단련
- (정면돌파전에서 당군으로서의 본때 보여주기) △사회주의 건설에서 창조와 변혁의 기적적 성과 이룩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 전개

⑩ 경제선동의 힘찬 포성으로 정면돌파전을 추동하자(4.28)

○ 경제선동을 통해 대중들의 당 정책 관철 투쟁 열의와 정신력을 총폭발시킬 것을 촉구 하는 사설

- * “경제선동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힘있는 정치사업”/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승리의 열쇠는 사회주의의 전진동력인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 시키기 위한 사상사업”

○ 경제선동을 통한 인민대중의 정신력 폭발 성공 사례로 1970년대 70일 전투와 지난 8년 동안 주요 대상건설 사업 소개

- 최근 탄광에 예술선전대와 경제선동대를 파견하여 증산효과 도출 사례도 공개

○ 경제선동 활동 전개를 위한 몇가지 방법 제시

- (당의 노선과 정책, 투쟁과업과 방도를 대중에게 정확히 인지) 사상성과 시기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경제선동에 가장 최근의 당 정책 반영
- (경제선동방향과 대상을 바로 정하고 집중 공세) 중심고리에 역량 집중 차원에서 금속, 화학, 석탄, 전력공업, 철도운수 등 주요 공업부문들과 농업전선에 집중
-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실효성 제고) 항일유격대식으로 격식과 틀이 없이 전개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배합
- (각급 당조직들의 실속있는 선동사업 진행)

//끝//